

# 80年中好況을 과시한 美石油業界

## 포천誌 5百大기업중 5位内가 4個社

美國의 「포천」誌는 최근호에서 80년도 美上位 5百대기업체의 랭킹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엑슨, 모빌, 텍사코, 스탠다드·오일·오브·캘리포니아 등 美國 굴지의 石油会社들이 지난 80년중의 油價폭등에 힘입어 美 5百대기업체들중 1,2,4,5 位를 차지했으며, GM과 포드자동차는 日製 자동차의 美國시장 대거침투로 인한 전반적인 자동차업계의 경기침체로 각각 3,6位로 처진 것으로 밝혀졌다.

5百대기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1조 6천 5백 3억 달러(前年比 14.2%增), 純利益은 8백 12억 달러(同 3.6%增)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伸張勢는 79년의 총매출액이 18.6%, 순이익이 27.3%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인 것에 비하면 그 신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純利益 3.6%增은 인플레이 조절을 13.5%를 감안하면 약 10%의 마이너스 成張이 되며, 약 2百개 기업이 각목에서도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3~74년의 제 1차 석유위기 이후 팔복할만한 伸張勢를 보여온 大석유회사들은 이번 80년도 5百대기업체 순위 20位안에 13개 업체를 진출시킴으로써 74년의 7개 업체에 비해 계속 好況을 누리고 있음을 과시했다.

다음은 5百대기업체들중 上位 50位까지의 企業名과 매출액, 순이익이다.

美國 500社 랭킹(80年)

<단위:억달러>

順位	前年順位	企業名	業種	売出額	純利益
1	①	엑슨	石油	1,031.43	56.50
2	③	모빌	石油	595.10	32.72
3	②	GM	自動車	577.29	▲7.63
4	⑤	텍사코	石油	511.96	26.43
5	⑥	스탠다드·오일·오브·캘리포니아	石油	404.79	24.01
6	④	포드·모터	自動車	370.86	▲ 15.43
7	⑦	걸프·오일	石油	264.83	14.07
8	⑧	IBM	컴퓨터	262.13	35.62
9	⑩	스탠다드·오일·오브·인디애너	石油	261.33	19.15
10	⑨	GE	電機	249.59	15.14
11	⑫	애틀란틱·리치필드	石油	237.44	16.51
12	⑬	셀·오일	石油	198.30	15.42
13	⑪	ITT	複合企業	185.30	8.94
14	⑮	코노코	石油	183.25	10.26
15	⑯	듀폰	化學	136.52	7.16
16	⑳	필립스·페트롤리엄	石油	133.77	10.70
17	㉑	베네코	石油	132.26	7.26
18	㉒	선	石油	129.45	7.23
19	㉓	유에스 스틸	鐵鋼	124.92	5.05
20	㉔	옥시덴탈·페트롤리엄	石油	124.76	7.11

21	②6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즈	複合企業	123.24	3.93
22	①9	웨스턴·일렉트릭	電機	120.32	6.93
23	③2	스탠다드·오일·오브·오하이오	石油	110.23	18.11
24	②3	프러터·앤드·갬블	洗劑	107.72	6.43
25	②4	다우·케미칼	化學	106.26	8.05
26	⑥2	케티·오일	石油	101.50	8.72
27	②5	유니온·카바이드	化學	99.94	8.90
28	③4	유니온·오일·오브·캘리포니아	石油	99.84	6.47
29	③0	이스트맨·코닥	写真	97.34	11.54
30	②9	보잉	航空機	94.26	6.01
31	④6	다트·앤드·크라프트	食品	94.12	3.83
32	①7	크라이슬러	自動車	92.25	▲ 17.10
33	③3	캐터필러·트럭터	建設機械	85.98	5.65
34	③7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	電機	85.14	4.03
35	③9	R·J·레이놀즈·인더스트리즈	담배	84.49	6.70
36	②8	굿이어·타이어·앤드·러버	타이어	84.44	2.31
37	③5	베어트리스·후즈	食品	82.91	2.90
38	④0	제록스	事務機器	81.97	6.19
39	④3	마라돈·오일	石油	81.80	3.79
40	④4	애슈랜드·오일	石油	81.18	2.05
41	③6	R C A	電機	80.11	3.15
42	③1	L T V	複合企業	80.10	1.28
43	④1	아메레이더·헤스	石油	78.69	5.40
44	④7	시티즈·서비스	石油	77.86	4.78
45	④9	필립·모리스	담배	73.28	5.77
46	④5	로크웰·인터내셔널	航空宇宙	69.07	2.80
47	③8	베들레헴·스틸	鉄鋼	67.43	1.21
48	④8	몬산토	化學	65.74	1.49
49	②7	인터내셔널·하베스터	農機	63.12	3.97
50	④2	에스마크	食品	61.08	4.72

## 80年中高所得을 과시한 美石油業界 經營人들

### 비즈니스위크誌 上位 25名中 11名이 차지

美国의 비즈니스 위크誌는 최근호에서 80년도 美国경영인 및 勞組간부의 소득랭킹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경영자의 報酬신장율은 겨우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勞組간부의 報酬신장율은 현저하게 둔화되었다. 그것은 勞組간부의 收入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대해 경영자 報酬는 年末보너스나 株式 옵션(株式買受의 선택권)등으로 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인의 所得랭킹을 보면, 美国최대의 카본블랙 메이커인 캐보트社의 차피社長이 年取 3백33만 달러(약22억 8천만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금액은 작년도 1위였던 로젠펠트(메트로·골드윈·메이어·필름社 최고경영책임자, 5백10만달러)나 同2위인 워너(모빌會社, 4백30만달러)의 소득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2백52社 5백 8명의 경영인중 上

□ 海外話題

位 25명을 보면, 11명이 石油 및 石油 관련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다. 캐보트社의 경우만 보더라도 石油, 天然가스부문에 손을 대고 있으며, 알제리로부터 LNG(液化天然가스)를 수입하고 있어 석유관련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上位그룹에 속하는 경영인 소득의 대부분은 급료나 보너스가 아니라 株式 옵션에 의한 소득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제도는 任員들에 대한 보수장려 정책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발행시의 市價의 95%를 시세가 기준치보다 떨어져 있지 않는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가 있다. 차피社長의 소득 3백30만 달러 중 2백53만1천달러는 이러한 株式 옵션이나 기타 收入에 의한 것이다.

5백8명의 경영인의 소득의 前年比 신장율은 13.7%로 작년도 美國의 소비자물가 상승율인 13.5%를 겨우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勞組간부의 소득을 보면, 소비자물가를 상회하는 신장율을 보인것은 51명중 겨우 11명의 그쳤고, 나머지중 29명은 신장율이 8% 이하로 떨어졌다. 그것은 勞組간부의 봉급인상이 5년마다 大會에서 결정되어 연간 인상율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勞組간부의 소득랭킹을 보면, 트럭운전자 조합인 팀스타(全美運輸勞組)의 피츠시몬즈 會長이 15만6천2백50달러(약 1억7백만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피츠시몬즈 會長의 급료는 79년부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勞組간부의 평균임금은 5만달러내외가 대부분이다. 유명한 勞組인 AFL·CIO(美國노동총연맹산업별 회의)의 커크랜드 會長이 10만2천3백7달러(약 7천만원), UAW(美國자동차노조)의 프레이저 會長이 6만8천6백94달러(약 4천7백만원)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美經營人 所得랭킹(80年)

(단위 : 千달러)

順位	이름	회사 및 職位	合計 所得
①	로버트 차피	캐보트·社長	3,330
②	에드워드 기브스	N. L. 인더스트리즈·副社長	3,225
③	C. C. 가빈	엑슨 會長	3,060
④	존·케네틱	유니온·퍼시픽社長	3,054
⑤	그레이트·하트레이	유니온·오일·오브·캘리포니아 會長	3,026
⑥	데이비드·루이스	제너럴·다이나믹스 會長	3,012
⑦	제임스·에반즈	유니온·퍼시픽 會長	2,798
⑧	J. E. 스웨아링겐	스탠다드·오일·오브·인디애너 會長	2,587
⑨	네트·타넨	MCA 會長	2,467
⑩	레이·아담	N. L. 인더스트리즈 會長	2,369

美勞組幹部 所得랭킹(80年)

(단위 : 千달러)

順位	이름	勞組名·職位	給料
①	프랑크·피츠시몬즈	팀스타즈 會長	156
②	레이·슈에스링	同 사무국장	125
③	프레드·크롤	鐵道·航空勞組 會長	120
④	윌리엄·윈	全美食品·商業勞組 會長	118
⑤	샤논·윌	海運組合 會長	115

## 高所得을 謳歌하는 日本의 土地甲富들

### 80年度 高所得 1백位안에 土地甲富가 65名

작년도 日本의 甲富대부분은 땅부자들이 차지했다.

日本 국세청이 최근 접수공개한 작년도 所得 확정申告에 따르면 上位 1백명 가운데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돈을 번 「土地甲富」가 65명이나 끼었다.

1위는 약 10만m<sup>2</sup>의 토지를 住宅公団등에 판 시바겐의 한 会社사장 오오카와 씨로 신고소득은 34억 4백93만円,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백 7억 2천 5백53만원이다.

그와는 별도로 고등학교 3학년생인 그의 長男이 5억 2천 7백만円(16억 6천43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父子 두사람의 소득을 합치면 39억 3천 2백만円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73년 長谷川씨의 51억 4천4백만円에 이어 두번째의 高額소득이 되는 셈이다. 소득세 신고인원은 모두 5백94만 2천명으로 1인당 신고액은 평균 3백 81만円. 국세청은 이 중 1천만円 이상만 公示했는데 이 숫자는 前年보다 5만명 늘어난 43만명에 달한다.

작년 1년간 1억円이상을 벌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前年보다 5백80명 증가한 2천 6백 1명이며 5억円이상은 41명, 1천만엔이상이 납세자(소득세) 13.8명중 1명꼴. 上位랭킹 1백명

중 65명은 土地양도에 의한 소득으로 올라섰다.

異色の인 것은 시바 市에 본거지를 둔 폭력단의 두목 篠觀兵씨가 8억 3천만円을 신고해서 5위를 마크한 것이고 정치가로서는 93위의 「고오모또」(河本嘉久藏)議員의에는 한사람도 끼지 않았다는 것. 인기직업에 속하는 作家·가수·배우·프로 스포츠맨 등의 소득이 계속 늘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作家로서는 「項羽와 劉邦」이라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시마·료오마로」(可馬遠太郎)가 1위로서 신고소득은 3억 1백만円. 그는 前年度에도 작가중 6위의 랭킹에 있었다. 「項羽와 劉邦」이란 소설은 약 1백80만부가 팔렸다.

가수로는 토지양도소득까지 겹쳐 2억 4천 7백84만円을 신고한 「야자와」(矢澤水吉)가 1위. 배우로서는 「모리·미쓰고」(森光子)의 1억 4천 1백60만円 프로 스포츠界에서는 야구선수인 王貞治가 前年에 이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고소득은 1억 6천 1백43만円.

이밖에 작곡가 「엔도·미노루」(遠藤実)이 3억 3천 5백71만円の 소득을 신고했고 만화가·조각가·의상디자이너 등으로 1억円 이상을 신고한 사람이 18명에 달한다.

日本最高所得者 推移

(단위: 万円)

年 度	性 名	職 業	所 得 額
47	加 藤 尚	직 물 업	3,500
48	森 脇 將 光	금 용 업	9,000
49	大 野 富 則	大 野 製 藥 所 社 長	3,849
50	黒 沢 貞 二 郎	黒 沢 上 詰 "	4,241
51	古 谷 博 美	탄 광 업	35,077
52	"	"	31,587
53	上 田 清 次 郎	"	17,187
54	井 植 歳 男	三 洋 電 機 社 長	11,382
55	松 下 幸 之 助	松 下 電 器 "	12,056
56	"	"	18,130
57	"	"	21,012
58	"	"	23,991
59	"	"	25,686
60	石 橋 正 二 郎	브리 치 스톤타이어사장	30,896
61	松 下 幸 之 助	松 下 電 器 회 장	35,675
62	"	"	44,000

□ 海外話題

63	“	“	48,435
64	上原正吉	大正제약사장	54,871
65	“	“	51,731
66	“	“	69,259
67	大塚武三郎	大塚제약공장주	61,315
68	松下幸之助	松下電器회장	73,612
69	佐佐木真太陽	新日本관광홍업사장	218,015
70	大谷竹次郎	昭和電極사장	153,638
71	関兵馬	関兵精麦사장	389,094
72	範統万寿	나보개발대표	158,783
73	長谷川萬治	長谷川萬治商店사장	514,404
74	“	“	350,299
75	“	“	376,432
76	上原正吉	大正제약회장	169,047
77	“	“	212,365
78	古川義三	古川拓殖회장	277,189
79	上原正吉	大正제약회장	200,970
80	大川堅一郎	不動産業	340,493

해외석유산업동향

## 輕質油化대책 서두르는 日本정유업계

日本 精油業界는 산업계의 「脱石油」에 따른 重油의 공급과잉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重油留分の 경질화대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日本에서는 썬에너지의 추진과 石炭 및 LNG(액화천연가스)에의 연료전환 등 산업계의 「脱石油」추세로 重油의 공급과잉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日本 정유업계는 지금까지 常压증류장치등의 기존시설의 조업개선을 통해 重油留分の 산출을 억제해 왔으나 최근 증유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경질화 전용설비를 건설, 근본적인 油種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 설비는 현재

脱硫, 低粘度기술의 응용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超重油에서 직접 등유와 경유분을 추출하는 본격적인 重質油분해의 기업화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장 대담한 투자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은 日本石油그룹. 日本石油精製는 최근 室蘭정유공장(北海道)에 약 4백억円을 투입, 분해기능에 중점을 둔 低压殘油脱硫(VRDS) 설비의 건설에 착수했으며, 室蘭, 根岸(神奈川) 정유공장에 증유의 경질화설비를 신설, 증강하고 있다.

日本精油業界의 輕質化対策

企 業	設 備 内 容	能 力	稼動時期
日 本 石 油 精 製	VRDS装置新設(室蘭)	25	82年 11月
	비스브레이커 新設(根岸)	20	申請準備中
	FCC装置增強(根岸, 室蘭)	3~5	申請準備中
興 亜 石 油	아스팔트 熱分解設備增設(麻里布)	15	80年 4月
出 光 興 産	流動点下降装置新設(千葉)	6	80年 6月
丸 善 石 油	直接脱硫装置改造(千葉)	-	計劃作成中
제 너 털 石 油	FCC装置新設(堺)	25	申請準備中
極 東 石 油 工 業	비스브레이커등 新設(千葉) 檢討中		

(註) 能力은 日産 千배럴, 괄호안은 정유공장이름.